

“셋째부터 막내다 생각했는데 8명 됐네요”

광주 에덴병원 황금돼지해 첫날 8번째 출산 다둥이 가족 화제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낮 12시 13분 광주시 북구 두암동 에덴병원에서 몸무게 3.78kg의 건강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날 막내딸은 얻은 김용주(57·광주시 서구 화정동)·조정화(47)씨 부부는 최근 생활비, 육아비 부담에 출산을 꺼리는 부부가 늘어나는 사회적 현상과는 다르게 8남매의 부모가 됐다.

‘기(己)’는 땅 즉 황금빛을 나타낸다. 여기에 예로부터 풍요와 다산, 부를 상징하는 돼지가 더해져 기해년은 황금돼지의 해이다. 이런 황금돼지의 해에 태어난 아이는 복이 가득하다는 속설이 있다.

김씨 부부는 “주님의 축복으로 우리 가족에 축복이 생겼다”고 대명을 ‘축복이’라고 지었다. 아내 조씨는 큰딸 김하영(23)씨가 큰 돼지가 똥을 많이 싸는 꿈을 태몽으로 꾸던 날 ‘축복이’의 임신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축복이는 새해에 조씨 가족들에게 큰 선물을 주고 싶었던 듯 예정 일보다 2일 늦게 건강하게 태어났다.

‘어떻게 만나 결혼하게 됐느냐’는 질문에는 조씨는 옆에 앉아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남편이 쫓아다녀 결혼을 하게 됐다”며 활짝 웃었다. 남편 김씨도 사람 좋은 눈웃음으로 답했다.

금슬이 각별한 김씨 부부는 하영(여·23)·에스터(여·21)·수민(17)·수지(여·14)·태민(11)·태희(여·8)·선아(여·4)에 이어 갓 태어난 ‘축복이’까지 2남 6녀의 자녀를 품에 안게 됐다.

아이들은 입을 모아 “가족이 많으니 할

“아이들 많아 떠들썩해 좋아

큰애들 도움으로 아이들 키워”

병원측 병원비·기저귀 선물

상 떠들썩해서 좋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항상 울려 퍼져 언제나 화목하고 밝은 분위기”라며 화목한 가족을 자랑하기 바빴다.

남편 김씨는 “가족이 너무 많다 보니 매

주 교회에서 집으로 차를 타고 가는데 가끔 한두 명씩 빠트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돌아가서 데려오는 일도 가끔 생긴다”며 “이젠 항상 차를 탈 때 첫째부터 큰 소리로 본인의 숫자를 세며 차를 타게 한다”고 가족이 많음을 자랑하듯 말했다.

‘또 출산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씨는 “시아머니가 남들 있는 건 다 있어야 한다면 자식을 많이 낳으라고 했지만 둘째까지만 계획했었다”며 “셋째부터 항상 ‘이번이 막내다’라고 생각했는데 해마다 출산준비를 하고 이번엔 8번째 아이까지 생겼다. 혹시 또 모른다”고 말해 가족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조씨는 “큰애들이 형제가 아닌 마치 부모처럼 어린동생들을 돌봐줘 이렇게 8남매까지 키울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아이들에게 감사하다. 항상 건강하고 우에 있게 잘 자랐으면 한다”고 말했다.

허정 에덴병원장은 “최근 저출산이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가운데 기해년 새해 첫날에 우리 병원에서 산모와 8번째 아기 모두 건강하게 출산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병원비 전액과 기저귀·아기용품 등을 선물로 지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6일 오후 광주시 북구 두암동 에덴병원(원장 허정)에서 2019년 새해 첫날 8번째 아이를 출산한 조정화(가운데)씨와 가족들이 의료진으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대학원생119’ 출범

“교수 갑질” 대응 돕겠다”

3학년을 다녔던 중 민주교육지표사건으로 강제휴학 당했다. 같은해 7월 노동 운동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김영철·최기혁·전복길 등과 함께 들불야학을 창립했고 매일 밤 노동자들에게 노동권과 평등 사회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야학을 이끌었다. 훗날 5·18 때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한 윤상원 열사도 박 열사의 권유로 야학에 참여했다.

박 열사는 대학생 신분을 숨기고 광천공단 급속 제조업체에 견습 조립공으로 입사하며 광주지역 최초 위장취업 노동자가 됐고 1978년 12월 25일 새벽 연탄가스 중독으로 영면했다.

1982년 박기순 열사와 윤상원 열사는 영혼결혼식을 올렸고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지도교수에게 ‘갑질 피해’를 당한 대학원생들이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전문가들에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온라인상에 마련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은 “대학원 내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대학원생119’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대학원생119는 2017년 직장 내 갑질 문제 고발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출범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과 함께 만든 직장별 모임이다.

제보와 상담은 네이버 밴드에 마련된 공간을 통해 가능하다. 제보자들이 피해 사례를 공유하면, 직장갑질119 측 변호사·노무사들이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임을 위한 행진곡’ 주인공 박기순 열사 평전 출간

들불열사기념사업회

광주노동운동 등 정리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 고(故) 박기순(1958~1978) 열사의 평전(사진)이 출간됐다.

(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는 지난해 12월 25일 박기순 열사의 삶을 기록한 ‘스물두살 박기순-1978년 광주와 들불야학’ 출판기념회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박 열사가 세상을 떠난 지 40주년을 맞아 추진된 이번 평전 집필은 박 열사와 전남여고 동문이자 전남대 사회과학서를 루사(RUSA)에서 함께 활동한 언론인 출신 송경자씨가 맡았다.

평전에는 박 열사의 행적을 통해 광주



학생운동·민주화운동의 흐름과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정리했다.

1958년 보성에서 태어난 박 열사는 1978년 6월 전남대 사범대 국사교육학과

한전선로 걱정없는 태양발전소 분양

건축물 150평+태양광 100Kw 초특가 2억5천만원 (한전불입금 별도)

연금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1 강진군 대구면 6개소
- 2 보성군 노동면 10개소
- 3 보성군 득량면 ① 4개소
- 4 보성군 득량면 ② 4개소
- 5 보성군 보성읍 5개소
- 6 영광군 법성면 4개소

곤충사육장(건물 위)가중치 1.5배

- 곤충사육장 임대료 수익 추가 보장
- 땅+건물+태양발전+1층 임대비=년에 13개월 수입
- 농업회사법인 미래식량정원(주) 10년 임대수익 보장

빛나는 투자! 21세기 노후연금!
수익형 태양광 발전사업이란?

개인이나 법인 누구나 태양광발전소를 짓고 한전에 전기를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사업

태양광 발전수익	년 3,000만원~3,500만원
임대수익	년 250만원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상 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하주세요!